

2023. 1. 17.(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1월 16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

동행·매력  
특별시서울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  
소상공인담당관

소상공인담당관	최선혜	2133-5530
상품권운영팀장	박진수	2133-5136
주 무 관	김명기	2133-5138

사진없음 ■ 사진있음 쪽수 : 4쪽






## 서울시, 설날맞이 서울사랑상품권 3,000억원 18일부터 이틀간 7% 할인 발행 <자치구>

- 18일(13개구)·19일(12개구) 발행, 차례상 차림 비용 부담 줄이고 지역상권활력 기대
- 7% 할인으로 1인 구별 70만원까지 구매, 최대 200만원 보유 가능, 조기 완판 예상
- 동시 접속자 폭주 막고 원활한 구매를 위해 가맹점 찾기 제한 및 미리 구매앱 다운로드 필요

- 서울시가 '23년도 새해 첫 명절 설날을 맞아 3,000억원 규모로 '서울 사랑상품권(자치구)'을 발행한다. 이번 발행은 연이은 물가 상승으로 차례상 차림 비용 또한 증가하여 부담이 커진 소비자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하게 되었다고 시는 덧붙였다.
- 원활한 상품권 구매를 위해 이틀에 나누어 발행하여 동시 구매자를 최대한 분산하고자 했다. 강북구·광진구 등을 시작으로 13개 자치구는 1월 18일(수)에, 중구·강동구 등 12개 자치구는 19일(목)에 구매할 수 있다.

- 시는 18~19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치구별로 판매 날짜와 시간을 달리해 상품권 구매·결제앱인 ‘서울페이플러스’ 동시 접속자 수를 최대한 분산, 원활한 구매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.
- 서울사랑상품권은 ‘서울페이플러스’를 비롯한 5개 구매 결제앱에서 7%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월 7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. 발행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데, 예컨대, ‘중구사랑상품권’은 중구 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방식이다.
- 구매 후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전액 취소할 수 있고, 일부 금액을 사용했다면 보유 금액 중 60% 이상 소진한 경우에만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.
- 상품권 선물하기는 보유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가능하다.

구 분	'23. 1. 18(수)	'23. 1. 19(목)
09:00	강북구, 광진구	중구, 강동구
10:00	관악구, 금천구	용산구, 성북구
11:00	동작구	양천구
12:00	노원구	서초구
13:00	동대문구, 도봉구	종로구, 중랑구
14:00	성동구	강서구
15:00	강남구	송파구
16:00	영등포구	은평구
17:00	서대문구, 구로구	마포구

<서울사랑상품권 구매 결제앱(5개)>				
				
서울pay+	신한SOL	티머니페이	머니트리	신한 pLay

- 서울시는 동시 접속자 폭주를 막기 위해 상품권 판매일인 1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맹점 찾기(내 주변 맵점 찾기 포함) 등 일부 기능을 제한한다.
- 또한,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권 발행 전일까지 미리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다운로드받고 회원가입 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. 상품권 발행 시각에 맞춰 회원가입을 하면 자칫 시스템 부하 등의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거나 회원가입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.
- 지난해 1월부터 서비스 중인 서울사랑상품권 구매·결제플랫폼인 ‘서울페이플러스(+)’는 현재 14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서울소비생활에 중요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. 현재 서울 시내에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가맹점은 28만 개에 달한다.
- 한편, 시는 비플제로페이, 체크페이 등 지난해까지 이용했던 24개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앱 내 상품권 잔액을 서울페이플러스 등 5개 앱으로 이용자가 직접 이관(통합)하는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. 대상은 자치구 발행 서울사랑상품권, 유통기간 만료 자치구 상권회복특별상품권, 배달 전용 힘콕상품권이다.
- 잔액 이관은 먼저 플레이스토어(안드로이드)· 앱스토어(IOS)에서 서울페이플러스앱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후 기존 사용 앱 중 하나를 실행해

‘이관하기’ 메뉴를 누르면, 잔액이 한 번에 서울페이플러스앱 등으로 옮겨지는 방식이다.

- 시는 잔액이 여러 앱에 흩어져 있으면 결제할 때마다 앱 중 하나를 선택해 실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빠른 시간 내 이관해 편리한 이용을 하라고 당부했다.
  
-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“설 명절을 맞아 소상공인 보호와 가계의 경제부담을 경감하고자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되었다”며 “이번 발행으로 시민분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